



한문학당 참가 어린이들이 차수(叉手)를 하고 점심공양을 하러 가고 있다. 서산 부석사에서 개최하는 '부석사 총·효·예 한문학당'을 통해 학생들은 불교예절, 전통문화를 배우고 자립심을 기를 수 있다.

“떨감 읊기기, 눈 치우기 놀이하며 마음 공부해요”



서산 부석사 겨울 한문학당 개최

영하 10도 이하의 한파가 지속되는 한겨울, 충남 서산 부석사를 찾았다. 서울에서 늦은 오후에 출발해 저녁 즈음 사찰이 위치한 도비산에 도착하니 이미 해는 지고 북두칠성은 선명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다. 서해바다와 인접한 부석사에서는 천수만이 한눈에 들어온다.

신라 의상 스님과 선묘낭자의 플라토닉 사랑이야기가 창건설화로 유명한 부석사는 677년에 창건된 고풍스러운 천년 고찰이다.

부석사는 인적이 드문 아담한 절이었지만, 7년 전부터 한문학당과 우리나라 최대의 철새도래지인 천수만 철새탐조 템플스테이를 체험하기 위해 봄, 여름 전국 각지 남녀노소의 발길이 잦아졌다.

“부생아신(父生我身) 하시고, 모국아신(母鞠我身) 하시며, 복이회아(腹以懷我) 하시고, 유이포아(乳以哺我) 로다.”

“아버지는 내 몸을 낳게 하시고, 어머니

는 내 몸을 기르셨으며, 배로써 나를 품어 주셨고, 젖으로써 나를 먹여 주셨다.”

아이들의 우렁찬 목소리가 사찰에 울려 퍼진다. 추운 겨울 밤 호롱불에 의지해 천자문을 외던 어린 도령이 머릿속에 그려진다.

어린이들은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이 펴낸 <수심보경(修心寶鏡)>을 읊으며 <사자소학> <범구경> <초발심자경문> <명심보감>의 구절을 한자 한자 가슴에 새겼다.

충남 서산 부석사(주지 주경)에서는 매해 2회 여름·겨울방학에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부석사 총·효·예 한문학당(이하 한문학당)'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로 9회를 맞는 한문학당에는 1월 16~22일 6박 7일간 9명의 초등학생이 참가했다.

지난여름 어린이 한문학당에는 신정인원이 갑자기 늘어 제한인원 30명에서 40명으로 늘리기까지 했다. 하지만 올겨울은 유난히 추워서인지 당일 취소한 학생들이 많아 참여인원이 9명밖에 되지 않았다.

어린이들은 한문을 외우고 난 뒤 참회와 다짐의 시간을 가졌다. 친구들과 싸우지는 않았는지, 법당에서 뛰어다니고 소란스럽게 하지는 않았는지 혹은 짜증이 날 때 욕

을 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해보고 내일은 그러지 않겠다고 스스로 또 다짐한다.

이튿날 새벽 4시, 경내에 눈이 소복이 쌓였다. 하나 둘씩 아이들이 눈을 비비며 숙소에서 나온다. 새벽예불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9명의 어린이들 모두 자발적으로 새벽예불에 동참했다.

“야, 삼배부터 해야지.” 한 친구가 법당

시간을 가진 뒤 아침포행, 눈 쓸기, 불을 떨 장작 읊기기, 곤잘박이에게 먹이주기 등을 한다. 뛰어놀기가 좋아하는 아이들에게는 사찰의 운력 활동도 놀이이자 공부가 된다.

부석사 한문학당에는 한문수업과 템플스테이, 운력 활동만 있는 것이 아니다. 도비산 등산, 부석사 둘러보기, 인경체험, 단청그리기, 눈썰매장기 등 도심 학원에서 는 배울 수 없는 체험을 경험한다.

이날 체험활동은 단청그리기, 미리 준비된 뇌록질을 한 판에 단청문양의 윤곽을 그리고 그 위에 조심스럽게 색을 칠한다. 어수선하

던 아이들이 각각의 작품 활동(?)에 몰입한다.

단청그리기를 지도한 문화재수리기능사 김만숙 화공은 “색을 칠하는 작업은 산만한 아이들이 몰입할 수 있도록 해 심리치료에 도움이 된다”며 “궁궐, 절에 가서 문화재에 관심을 보이지 않던 아이들도 단청그리기를 체험하면 문화재에 관심을 갖게 된다. 한 번의 전통문화 체험이 평생 관심을 갖게 하는데 씨앗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새벽부터 시작되는 프로그램은 오후 9시에 모든 일과를 마친다. 타이프한 일정에 체력이 떨어질 만도 한데 아이들은 쉬

오전-한문공부, 오후-전통문화체험 단청그리기, 눈썰매 타기 등 재미 만점

에 들어오자마자 자리에 앉으려는 친구에게 예법을 상기시킨다. 새벽예불이 끝난 뒤 한 시간의 한문암송 시간이 이어졌다.

“이 음식이 어디서 왔고 내 덕행으로 받기가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 알야 도업을 이루고 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이후 영도 스님의 지도아래 발우공양이 진행된다. 한문학당에 참가한 나들이 되니 발우공양에도 요령이 생긴다.

구본승(학도초 6)군은 “단무지위에 김을 놓고 김 위에 김치를 놓아요. 깨끗하게 먹으려고요”라며 노하우도 들려준다.

학생들은 발우공양 후 영도 스님과 차담

는 시간만 되면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돌아다니며 까르르 거렸다.

부석사 한문학당을 진행하는 오진희 씨는 “취침, 식사 시간 등 생활이 규칙적이고 먹는 음식이 단순하기 때문에 아이들 스스로가 9시까지 일과를 할 수 있다”며 “한문학당에 참가하는 어린이들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청소, 잡자리 등 자신의 본분을 다하면서 부모의 응석받이가 아니라 하나의 독립체로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설명했다.

조여지(원주 중앙초 6)양은 “발우공양을 통해 밥 먹는 예절을 배우서 좋다. 108배와 새벽예불을 하면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한문도 배우고 친구들과 우정을 쌓을 수 있어 여름에 또 참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주경 스님은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영아교육에만 집중하다보니 한문이나 국어에 대한 관심은 떨어지고 있다”며 “한문은 불교 경전의 근본이다. 한자문화권에 속해있는 만큼 한문공부는 문장력이나 언어구사력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앞으로 자연, 생태 프로그램과 다양하게 연계해 어린이들의 생태체험 현장이자 쉼터이며 어린이포교당으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41) 662-3824

이냐는 기자



스님의 지도 아래 학생들이 <수심보경>을 외우고 있다.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물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물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물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물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물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생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받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에 아픈 곳에도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정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 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 발이 차가운 * 오심, 구토, 당뇨, 전립선
 ※ 생리통, 변비, 냉증, 신우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허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물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택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료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입금계좌: 농협 170-12-056037 정예연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대리모집(조합저각건강센터, 오심진조끼, 오주배계도 지매복다양)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불자물 www.buljamall.com

불자종합쇼핑몰 Bulja Mall

불자용품, 사찰홍보용품, 관촉물, 기념물, 답례품
 인쇄물전문(봉투, 전단지, 초대장 등)

최대 50% ~ 70% 할인
 소량구매도 가능합니다. (전화문의)
 문의전화 : 070-7257-0408